

2021년 4월 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4편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 7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160장(통150) 무덤에 머물러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3장 13~23절(구약p.1236)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나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21.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 말씀선포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은 2021년도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중 하나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분명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론 역사상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거짓으로 치부했듯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일에 의심을 품거나 혹은 말씀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믿고 또한 자신이 원하고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참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도, 욥도 또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살며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겼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성도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1.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 앞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풀무 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이 맹렬한 풀무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 낼 수 있겠느냐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 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고 확언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구원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 불 속에서 능히 건져 내실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화나 혹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과거의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며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며 또한 이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을 성도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설사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자신들은 결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풀무 불에서 순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18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든 계속됨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만을

의식하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세 기복적 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3.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 느부갓네살왕은 극렬히 분노하면서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한 풀무 불 속에 세 친구를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이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맹렬한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살리심으로 당신이 진짜 신이심을 알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놀랄 만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존재와 은혜를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강제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탐심을 자극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죽는 순교적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는 창세기 22장 5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게 하시던지 혹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셔서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죽은 자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시험도 잘 버티고 견디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67장(통157) 즐겁도다 이 날

◎ 폐 회 / 주기도문